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제3215호 www.metroseoul.co.kr

추신수, 홈런 포함 3안타

졸면 죽는다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불경죄로 수백명 앞서 공개총살"

김정은 공포정치로 연명… 명분없는 3세 리더십 한계

北 군부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이 지난 4월 30일께 숙청됐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현영철은 공개석상에서 졸고 김정은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됐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항공기 타격용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도 함께 전했다. 2013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처형된 장성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형됐다는 첩보가 있어 왔다.

국정원은 명분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극단적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을 지탱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현영철의 숙청 사실을 전하며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한 방식으로 공개처형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간부 처형 방식에 대해 "관련 분야 인원뿐 아니라 대상자 가족까지 참관시킨 가운데 소총 대신 총신이 4개인 14.5㎜ 고사총을 사용한다"며 "또한 '반역자는 이 땅에 묻힐 곳도 없다'며 처형 후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시신의 흔적을 없애는 방식도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김정은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면서 이행하지 않거나 김정은의 연설 도중 조는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전했다. 처형되는 죄목이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국가전복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벗어나 비리나 여자 문제는 물론이고 이견 제시나 불만 토로 등 사소한 죄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은의 극단적 공포정치의 근본 원인은 준비 없이 전격 등장한 권력 3세의 세습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공식교육 대신 과외형식의 권력수업을 받았으며 제대로 된 사회생활 경험도 없다. 자기만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 내 유일한 세력인 간부들을 공포정치로 억누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정원은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상징후를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북한 언론이 잠수함 탄도탄 수중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 10일 미국 민간위성사진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북한 신포 조선소 전경을 촬영한 위성사진.(왼쪽) 왼쪽 편에 보이는 바지선이 이번에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하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두 가운데에는 탄도미사일 발사용 실험용 잠수함이 정박해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안보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SLBM 조작 논란… 한미 정보분석 정면충돌

美 "잠수함 아니라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 韓 "조작 아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북한이 지난 8일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당국자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조작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북한 군사문제에 정통한 조지프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선임분석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 콜(화상회견)에서 "수심 몇 미터 아래에 놓인 바지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포 남부 조선소 부두 전경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위성사진은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가 북한 언론이 잠수함 탄도탄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촬영했다.

버뮤데즈 분석관이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부두에 정박된 잠수함 바로 옆에 가로 10m×세로 22m 크기의 바지선이 계류돼 있다. 잠수함 꼭대기에는 탄도탄 발사에 쓰이는 높이 9.4m, 넓이 1.7m의 수직발사관이 관찰됐지만 실제로 발사실험에 쓰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바지선 발사 실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초기 단계에 통상 등장한다.

버뮤데즈 분석관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버뮤데즈 분석관은 "지난해 10월 잠수함을 진수한 북한이 6~7개월 만에 잠수함 탄도탄을 시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수중 발사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은 현 단계의 북한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SLBM 개발 추진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파악하고 추적해 왔다며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수중 사출시험을 과거에도 이번과 유사한 형태로 몇 차례 실시했다"며 "이번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처음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군부는 김 제1비서가 직접 참관한 자리에서 사출시험이 실패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수 차례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했으며 우리 군 정보당국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미 전문가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北 '서해 NLL 이북 포사격훈련' 통보

북한이 1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벌이겠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13일 오후 3시부터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NLL 이북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전통문은 합참 앞으로 보내졌으며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전송됐다. 지난해 3월 말에도 북한군은 NLL 이북 해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포탄이 NLL 남쪽 바다에 떨어져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서해 북측 해상 분계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조준타격'을 하겠다는 위협성 전통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냈으며 9일에도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문해 서북도서 해역에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NLL 인근에 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측 해역을 향해 포 사격 훈련을 계획한 것은 우리측을 위협하려는 긴장 조성 행위"라며 "북측이 우리측 해역으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서해상 경계 및 감시 강화 등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윤아기자

추가 강진 카트만두 피해 현장 전날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네팔에서 최소 65명의 사망자와 약 2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지진 피해 현장에서 미 국제개발처(USAID)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네팔 추가 강진으로 최소 65명 사망

17일 만에 추가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네팔에서 13일(현지시간) 오전까지 최소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0명의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번 추가 강진으로 신두팔촉의 차우타라 지역에서는 최소 3차례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남아있던 가옥 대부분이 붕괴됐다. 현지 언론 등은 이 지역에서만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지난 4월 25일 강진으로 주민 3200명 이상이 사망한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카트만두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다. 주민들은 지진발생 직후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와 대피했다. 북쪽 발라주 지역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졌다. 네팔에 인접한 인도 비하르주와 티베트에서도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구조작업 도중 희생도 발생했다. 네팔에서 지진 구호활동을 하던 미국 해병대 헬기는 12일 체리콧 인근에서 구호활동 도중 실종됐다. 이 헬기에는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 군인 2명 등 총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는 300여 명의 미 해병대원이 파견돼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6월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여진이 우기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합산지개발센터(ICIMO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강진 이후 네팔에서 다섯 차례, 티베트에서 한 차례 등 모두 6번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산사태들은 일대의 강과 하천을 막아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몰든 ICIMOD 총괄책임자는 "다수의 산사태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예비군 총기난사 범인은 'B급관심병사 출신'

내곡동 훈련장 영점사격 중 범인 등 2명 사망·3명 부상

13일 오전 발생한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범인이 현역 시절 B급 보호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동원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실제 총기류를 다루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해자 최모씨를 포함한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특히 가해자 최씨는 현역 시절 보호·관심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전방 모 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8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보호 관심사병을 특별관심대상자인 'A급'과 중점 관리대상자인 'B급', 기본관리대상인 'C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군이 지정한 A급이란 자살징후가 있는 특별관리 대상을, B급은 중점 관리 대상, C급은 기본 관리대상이다. A급 관심병사는 GOP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B·C급은 근무할 수 있다.

사건 당시 최씨는 당시 영점사격 중이었고 K-2소총과 실탄 10발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점사격이란 총의 조준점과 탄착점이 일치되도록 소총의 조준구를 조정하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영점사격 시 개인당 실탄을 10발씩 줘서 사격훈련을 한다"며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난사한 것인지, 자신이 죽으려고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상자들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예비군 훈련은 전날 시작했으며, 오는 14일까지 2박3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 훈련에는 최소 545명이 참가했으며 현재 예비군들은 훈련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한민구 장관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면서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후 사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긴장감 도는 총기 사고 현장
13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앞에서 군 관계자와 수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와 원내대표만 참석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참석해 앉아 있다. 이날 문 대표는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출석 정지 방침을 결정했다.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유승민 "부실기업 과감히 수술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혁단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몇가지 중요한 업종에서 몇몇 주력기업들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한다"며 "정권 임기와 무관하게 과감하게 수술할 땐 해야 더 큰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 안에 있는 암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느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암적 존재인 부실기업들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과감한 해결 방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정권이든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안게 된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제도만으로도 정부의 의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 담당기관들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퇴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국민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라며 "우리가 새롭게 진입하고 성장하고 벤처하고 창업하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몰려 있는데 사실 퇴출, 구조조정을 잘해야지 그쪽에서 새 살이 돋아난다"고 강조했다.

/김서이기자

"박지만, 권력 기웃 말고 진정한 경영인 돼라"

이지그룹 계열사 노조 분회장 유서 공개

고 양우권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 권력에 대한 관심을 끄고 기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가 13일 공개됐다. 양 분회장은 이지테크의 마지막 남은 노조원으로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지테크는 이지그룹의 계열사다.

양 분회장은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에게 보내는 유서에서 "자식들 같은 직원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당신은 호의호식하며 지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소. 권력 옆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제발 당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 인간다운, 기업가다운 경영인이 되어 주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요. 내가 하늘에서 두눈 부릅뜨고 내려다 볼 것이오"라고 적었다.

양 분회장은 "한 마디로 당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며 "기업가로서의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기본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추악하고 더로운 악행(을) 내가 모르는 줄 아시오"라며 "당신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소"라고 적었다. 또 "당신에 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 두 귀로 다 들었고 듣고 있소"라며 "천벌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현대중공업 노조, 권오갑 사장 또 고발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 불이행"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이어 두 번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이 특별격려금 지급 불이행으로 권오갑 사장을 고발했다. 권 사장에 대한 노조 측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노조는 3월 여사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로 권 사장과 본부장, 부서장 등 4명을 대검과 울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 측 관계자는 "사측이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상 때 합의한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지난 8일 권 사장을 단협 불이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특별격려금 100만원은 성과금을 대신해 회사가 4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를 봤고 문서화돼 있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다. 임단협 과정에서 특별격려금 지급 시기와 금액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진수 수석위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특별격려금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 입니까"라고 묻고, 사측은 이에 "2015년 4월 말까지 조합원 개인별 100만원을 지급토록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내용은 '상반기 중 회사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문서화됐다.

'2015년 상반기 중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특별격려금을 주기로 하고, 노조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합의서의 주된 골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영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의 가시적인 협력도 없는 상황에서 충족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1분기 19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1889억원)보다 소폭 늘고, 4분기(223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말하는 '경영 상황 개선'이 흑자가 아닌 적자폭 감소에 핵심을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당시(2014년 임단협) 사측의 적자폭이 크다보니 임금인상을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채권단의 조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상여금을 적게 주는 대신 격려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상 흑자가 아니라 적자여도 폭이 줄어들면 지급키로 했다"며 "사측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회사는 경영이 개선되고 되면 상반기 중에 격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사측은 경영 개선과 관련,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17개월(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검토 중이다. 1심은 2009년부터 3년간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한편 현중 하청노조는 조합원 가입 과정에 사측의 방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검찰이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박한철 소장 "5·18 정신이 헌재 존립 근거"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이 바탕이 돼 태동했고, 그것이 존립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며 이 같이 말했다. 5·18 묘지를 참배한 건 박 헌재소장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소를 직접 찾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희생한 영령을 추모하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참배 이유에 대해 밝혔다.

헌법재판소 광주지역 상담실 방문 차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하게 됐다고 밝힌 박 헌재소장은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와 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둘러봤다.

박 헌재 소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고 적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서는 "유족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연미란기자

'저축銀 금품수수'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금품 공여자 진술 일관성 유지"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 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은 1년이 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여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케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의원은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 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미란기자

'세월호 비하 발언' 지만원 국가상대 패소

세월호 참사를 '시체장사' 등으로 표현한 지만원(73·사진)씨가 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낸 국가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이정엽 판사)는 지씨의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처벌이 당시 공공의 관심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알려진 경위나 지씨의 게시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지씨의 공적 인물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씨의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도 피의자가 된 지씨의 피해와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권리가 우선 된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썼다.

지씨의 글이 논란이 일으키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경찰은 지씨의 글이 '세월호 참사를 외부세력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지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이 판사는 지씨가 자신의 내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이홍원기자 hong@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행복을 나누는
SK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 [구름에]
탤런트 배종옥씨도 함께 합니다

고택을 리조트로 만들면
사람들이 즐겨찾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도 보존됩니다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SK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편안한 휴식과 힐링의 공간 **[구름에]**
저 배종옥도 추천합니다

예약문의 : www.gurume-andong.com
054)823-9001

檢, 이완구 최측근 소환

'금품수수 의혹' 집중 추궁… 성완종 운전기사 윤모씨 회유 의혹도

검찰이 이완구 최측근 비서관을 소환해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3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민수 비서관을 이날 오후 2시에 조사실로 부른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 업무와 조직 관리, 수행 실무 등을 총괄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당시에도 캠프의 실무 책임자였다.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 이후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대를 증언한 운전기사 윤모씨를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와 자신의 회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유한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일정 담당 비서들을 소환 조사 하기로 한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 방문 당시 동행한 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등을 조사하면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날 때 3000만원을 준비해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돈을 담는 데 사용된 '비타 500' 상자와 관련해선 성 전 회장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모 은행지점에서 비타 500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도 현금을 넣어 보는 현장검증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경우도 쇼핑백에 담겨 오고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곧 소환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동화 전 부회장을 내주 소환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회장이 사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의 일선에 있던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에서 251만 달러(약 2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모(53)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본부장의 전임인 박모(59) 전 본부장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흥우산업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곳이다.

김모(63)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리고 하청업체 4곳에서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달 기각된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12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현직 본부장 4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김익희(64) 전 부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병이 있는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병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 쪽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미란기자

'경남기업 특혜' 의혹 최수현 전 금감원장 고발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최수현(60·사진)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원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 전 원장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금융지주와 금감원, 경남기업의 불법유착 관계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고발된 이들 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핵심인사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들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홍원기자 hong@

'200억 횡령 혐의' 박재천 회장 법원 출석

'포스코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법원에 출두했다.

13일 오전 10시 15분쯤 박 회장은 1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2005~2012년까지 포스코와 거래하며 납품 가격,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로 포스코와 여재 슬래브(철강원료)를 거래하며 조성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부업체를 두고 있어 비자금 세탁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그룹 고위 관계자에게 상납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홍원기자

'킹고마라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킹고 마라톤'에 참가한 학생들이 출발에 앞서 환호 하고 있다. /뉴시스

檢, 증거 은닉·회유 '홍준표 최측근' 압수수색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 최측근들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황들이 빼돌려진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12일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구체적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 전 비서관이 근무하는 현대글로비스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나 본부장 등이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해 홍 지사의 일정담당 비서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홍 지사측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2011년 6월을 전후한 일정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윤승모씨를 2011년에는 11월에 처음 봤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는 홍 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51)씨를 비롯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들과 만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을 비롯한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홍 지사가 당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비공식' 지출내역을 파악할 만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연미란기자

은행권, 희망퇴직·재고용 등 고용안정 총력

채용규모 2배 확대… 카드업계 임금피크제 실시도

금융권이 올해 채용규모를 2배로 확대하며 인재영입에 나섰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10.2%)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된데다 정부의 고용독려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특히 내년 정년연장 도입을 앞두고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한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지역 인재 등을 우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신입·경단녀 등 신규 채용 2배 확대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채용인원을 연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한 8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최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대졸 신입행원을 포함해 정규직 직원으로 상반기 200명, 하반기 270명을 각각 뽑는다. 경력단절여성도 연중 330명을 수시 채용할 예정이다.

또 전국을 순회하며 우수 인재를 사전 채용하는 'We크루팅'프로그램과 '지역전문가 제도'를 통해 인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광구 은행장은 "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비대면채널 확대로 인한 점포통폐합 등으로 신규채용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입행원 채용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단녀 채용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4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220명을 채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70명과 경력단절여성 280명, 시간선택제 전담 관리직 220명이 포함됐다.

올해 신설되는 시간선택제 전담 관리직도 눈에 띈다.

부지점장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전담 관리직'을 통해 퇴직 직원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은 하루 2시간 동안 1개 영업점의 감사나 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퇴직자의 제2의 삶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신규 채용 확대와 장기근속 직원 지원을 위해 대규모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 장기근속자에 희망퇴직·임금피크제·창업지원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임금피크 직원과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은행 측은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치의 평균 통상임금 등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킬 예정이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 직원에 대해선 마케팅 직무를 도입하는 등 임금피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가운데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택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드업계는 KB국민카드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삼성카드도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직원들의 인생 이모작을 적극 지원하는 곳도 있다. 현대카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CEO 플랜'이 바로 그것.

앞서 현대카드는 퇴직 직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CEO PLAN' 2호점을 열었다. 'CEO 플랜'은 창업 상담과 교육부터 아이템, 입지 컨설팅, 오픈 컨설팅과 오픈 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이는 '퇴직 푸어(Poor)' 시대에 직원 입장에서 회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한은행 배우자 초청 뮤지컬 관람 신한은행은 13일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샤롯데씨어터에서 부서장 배우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조용병(가운데) 신한은행장과 부서장 배우자들이 뮤지컬 '드림걸즈' 관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생보시장서 온라인보험 성장세 '뚜렷'

지난해 초회보험료 전년 대비 6배 성장
KB·알리안츠 등 온라인채널 설립 '붐'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에서도 보험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보험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3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생보업계에서 온라인보험으로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1년 전(2억2700만원)보다 6배 증가한 13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KDB생명이 8억8600만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해 전년 대비 14배 이상 성장했다.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2억87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배가량 초회보험료가 늘었다.

온라인보험의 가파른 성장세는 기존 설계사 사업비가 없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가파른 성장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평균적으로 사망보험인 정기보험의 경우 약 30%, 연금보험의 경우 3~6%가량 오프라인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각종 특약이 없는 단순한 보험이 대부분으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온라인보험의 경우 30~40대의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이프플래닛이 출범때부터 지난 2월 말까지 15개월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입자 연령은 30대가 5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32.9%), 20대(8.8%), 50대 이상(4.3%) 순이었다. 20~40대가 전체의 95.7%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보험이 인기를 끌자 생보업계에서도 잇따라 온라인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KB생명은 이르면 오는 6월 다이렉트 상품을 출시한다. DM(다이렉트마케팅)영업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스템 정비를 마치는 데로 순차적으로 상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3월 초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에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준비 중인 상품은 보장성보험 2종으로, 현재 IT부와 마케팅부에서 전산 작업과 상품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합친 법 절차 필요

기업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가미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생절차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효율성 방안을 토론했다.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회생절차(법정관리) 제도를 점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용석 KDB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구조조정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신속히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과 법적 강제에 기반한 근본적인 채무를 재조정하는 회생절차 등 두 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통합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주채권은행 중심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이 인가해 기업을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크레디터스 트랙(Creditor's Track·가칭)'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율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실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신규자금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는 회생절차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려면 회생절차기업을 퇴출대상으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업 신용 위험평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꼽았다.

임 변호사는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여력을 활용하게 하는 등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거나 지배구조가 바뀐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를 종결, 조속히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정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채무자(기업)입장에서 채권자와 협조해 사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기업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사전계획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무는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많은 기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생절차 종결 직전에 기업과 금융기간의 MOU 체결 등으로 회사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 인큐베이팅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몸집 줄인 아모레퍼시픽에 개미들 투자로 화답

재상장 뒤 개미 매수 급증
액면분할 후 시총 7위 우뚝

아모레퍼시픽이 액면분할로 몸집을 줄여 돌아오면서 증시에 돌풍이 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신주권변경상장 전 10여일 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유동성 증가와 성장 모멘텀을 기대해온 개미투자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재상장에 매수 우위로 화답하고 있다.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전일대비 3.32%(1만2500원) 오른 38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대금은 1458억원을 넘어 현대차(1246억원)와 삼성생명(1000억원)에 앞섰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억원, 34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가 27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날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2조7403억원으로 포스코(22조5813억원)와 신한지주(21조2678억원)를 넘어섰다. 6위인 현대모비스(22조8758억원)와의 격차는 135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상하이의 번화가인 화이하이중루에 있는 바이성 백화점에 입점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매장. /연합뉴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달 21일 아모레퍼시픽의 유동주식을 늘리기 위해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쪼개는 액면분할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2일부터 신주권변경상장 전날인 지난 7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1거래일 만에 유가증권시장에 귀환한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귀환 당일인 지난 8일 전거래일 대비 3.06% 빠진 37만6500원을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주가에 1분기 호실적과 장기 성장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반영돼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귀환 2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현재 한 주당 가격 40만원 선을 넘보고 있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증시에 몰린 개미투자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된 결과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의 액면분할은 개인고객에게 주식시장의 문턱을 낮춰주고, 주식 거래량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액면분할은 주당 금액을 낮춰 보다 많은 주주에게 매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단주거래가 전면 허용되면서 액면분할 효과는 예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100만원 이상의 초고가주에 대한 주주들의 액면분할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증시에서 1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단주거래가 처음으로 허용된 것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다. 이후 2006년 6월부터는 단주거래 기준이 '주당 10만원 이상인 종목'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내려갔고, 현재는 5만원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도 단주거래가 허용돼 있다.

그 이전에는 최소 거래단위가 10주로, 10만원짜리 주식을 매매하려면 최소 100만원의 금액이 필요했다. 이는 100만원 미만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겐 매매장벽이 돼 왔다.

김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액면분할에 나선 종목은 66종목이며, 올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10종목이 액면분할돼 거래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이 액면분할 이후 종목별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며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4일 1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우려에 따라 향후 주가 변동도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액면분할로 늘어난 유동성이 외국인의 매도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의 이익은 화장품주로 대표되는 매출성장주의 옥석가리기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수도권 뉴스테이 5529가구 공급

국토부, 2017년까지 준공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 리츠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가구를 올해 중 착공해 2017년까지 준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400가구 ▲인천 남구 도화동 2107가구 ▲서울 중구 신당동 729가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293가구 추진이 확정됐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공군비행장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다. 오목천로 접근이 용이하다.

인천 도화동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초·중등학교가 많다.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1호선 도화역, 제물포역과 인접해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가깝다.

서울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있다.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상왕십리역이 가까이 있다.

대림동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이 인근에 있다. 배후에 종합병원과 공원이 있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주택과 비교해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것"이라며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리츠는 오는 20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위치	세대수(호)	총사업비(억원)	준공	임대기간
인천 도화동	2107	6148	2017년 12월	민간(8년)
서울 신당동	729	2710	2017년 11월	준공공(10년)
서울 대림동	293	750	2017년 5월	민간(8년)
수원 권선동	2400	8416	2017년 12월	준공공(10년)
소계	5529	1만8024	–	–

참치값 하락… 동원F&B 주가 '장밋빛'

참치 1t 당 1200 달러 땐
영업익 100억원 오를 듯

동원F&B가 참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 참치 가격이 1톤당 1100~1200 달러 수준인데, 이 같은 가격이 올해 내내 유지된다면 영업이익이 약 1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이 매출액 4862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7% 올랐고, 영업이익은 27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상승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하회했다. 다만 자회사 동원홈푸드는 지난해 2월 삼조쎌텍과의 합병 이후 거래처 확대, 판매량 증가 등의 시너지효과가 지속됐고, 1분기 매출성장률 21.7%, 영업이익증가율 25.4%로 양호했다.

이에 대해 박애란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이익증가율이 예상보다 낮기는 했으나, 2분기 방향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1분기에 부담됐던 돈육 원재료 재고는 대부분 소진됐고, 원유 공급량이 2월 들어 축소됐다"면서 "선망참치(캔용) 어가는 연초 1200 달러/톤에서 최근 1025 달러/톤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회사 동원홈푸드도 편의식품시장 성장과 이마트 '피코크'와 '허니버터' 관련 제품 등 신제품 인기에 따른 B2B(기업간 거래) 소스 수요 확대 기반으로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참치 가격 하락으로 올해 호실적을 점치고 있다.

송광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동원F&B가 참치 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 올해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수급이 변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참치 가격이 계속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동원 F&B는 현재 참치캔, 축육가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생수 매출이 늘면서 실적이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

4월 취업자 증가폭 23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만6000명 늘어 증가 폭이 2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5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6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OECD 비교기준)는 65.6%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과 동일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아르바이트 중이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3%다.

/김민지기자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K 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영토확장 시동… 유럽서 물밑작업

엑소르 사외이사 연임 결정 삼성-FCA 협력관계 주목 배터리 사업 숨통 가능성도

삼성이 전기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 사업의 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유럽으로 날아갔다. 삼성이 밝힌 공식적인 출장 목적은 이탈리아 투자회사 엑소르(Exor) 이사회 참석과 유럽지역 사업 점검이다. 엑소르는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의 지주회사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 경영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분 단위를 쪼개 쓰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엑소르의 사외이사 연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업계는 삼성과 FCA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FCA는 크라이슬러·피아트 등 대중 브랜드부터 마세라티·페라리 등 슈퍼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7위 규모의 자동차 회사다. 지난해 매출은 960억 유로(약118조원)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FCA의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연료 차량 역량 강화가 필요한 FCA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FCA와의 협력이 구체화 될 경우 삼성의 전기자동차 부품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삼성SDI의 중대형 배터리 사업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SDI는 BMW와 포르쉐, 아우디 등에 차량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물량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삼성SDI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BMW 등으로 나가는 물량이 사전에 합의했던 것 보다 적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운영체제(OS) 타이젠의 자동차용 플랫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각각 차량용 OS인 '카플레이' '안드로이드오토'를 발표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제조사들은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오토의 탑재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상황이다. 삼성의 차량용 OS 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생태계 구축 문제 등 구글·애플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中 게임족 잡아라" 삼성전자 모니터시장 접속

중국 게임방 급증에 커브드모니터 공급 등 TV시장 적자 만회나서

삼성전자가 TV사업 수익 개선을 위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TV 사업은 유럽과 러시아, 브라질 시장의 수익 부진과 판매가 인상에 따른 판매 둔화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게임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장은 13일 주력으로 내세우는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좋다"며 "중국서 게임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덩달아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 목표"라며 "커브드 모니터 시장도 괜찮은 편이고, 실제 (판매가)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김 사장이 중국 시장 공략을 강조한 이유는 중국 게임방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있다.

중국시장에 능통한 김양훈 웹젠 홍보팀장은 "중국 내 게임방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초고화질 게임까지 등장하면서 생생한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니터도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게임방 규모는 대부분 200여대의 PC를 보유할 정도로 대형화 됐다는 점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활로를 개척할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2015년형 커브드 모니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한편 김 사장은 올해 초 CES에서도 올해 사업방향을 묻는 질문에 '커브드'를 언급하며 올 한해 주력으로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LG-충북창조혁신센터 올 20개 벤처기업 육성

LG그룹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충북혁신센터)와 손잡고 충북지역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LG그룹과 충청북도가 함께 개관한 충북혁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충북혁신센터 특허 전용창구인 '특허 서포트존'을 통해 개방한 5만4000여건의 특허나 자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해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다.

충북혁신센터는 7월 중 최종 10개의 사업화 아이디어를 선정, 시제품 제작과 실제 제품화를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자체 보유 기술의 특허 권리화와 사업 자금 지원 등에 나선다.

또 올해 안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20개 발굴, 이들 기업의 매출 성장, 해외사업 진출 등 실질적 성과 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준원 충북혁신센터장은 "LG의 특허,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각 벤처기업별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 매출 성장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혁신센터는 이날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충북도내 1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추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8개의 벤처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과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점프-업 데이'를 개최했다. 선정된 벤처기업은 보노켐, 빼르코, 유니크바이오텍, 코스랩, 한비, AOS, 데시존, AMS 등이다.

충북지역의 특화된 산업인 K-뷰티, K-바이오 중심의 벤처기업들이다.

/양성운기자 ysw@

1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드림樂서'에서 학생들이 3D프린터 관련 체험수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2015 드림樂서' 스타트

10월까지 전국 9곳서 10회

삼성전자와 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15 드림樂(락)서'가 13일 경기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올해 일정을 시작했다.

'꿈이 가득한 곳, 이곳은 꿈의 빌리지 드림樂서입니다'란 슬로건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에는 경기 북부 지역 소재 59개 중·고교 재학생과 교사 등 2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3년 시작된 '드림樂서'는 지역사회 중고생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5 드림樂서' 의정부 편 행사의 총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진로액션플래닝 △'드림투어(Dream Tour)' △멘토링카페 △4롤모델 페스티벌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한편 올해 '드림樂서'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논산·광주·용인·강원·화성·대구·천안·수원 등 9개 지역에서 10월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조한진기자

한화, 전통문화 예술교육 앞장

문화소외계층대상 7년 봉사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와 함께 지난 6년간 운영해온 '한화예술더하기' 사업을 전통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새 단장해 추진한다.

1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예술더하기는 2009년부터 전국의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한화그룹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기존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주력했던 것에 더해 다문화가정, 새터민, 일반학교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난 6년간의 한화예술더하기 사업 평가결과와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도 재구성했다. 지난 운영과정에서 교육성과와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전통문화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이다. 향후 3년간 전국 60개 기관(매년 20개씩)에서 120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야금, 사물놀이, 창극, 전통무용, 서예·민화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한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12일 서대문구 드림스타트에서 가야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제공

한편 한화예술더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예술교실'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50여회 진행된다.

/김종훈기자 fun@

현대자동차는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 중 상황별 대처 능력과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레이디 스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김여사님, 마트 주차 노하우 알려줄게요"

현대차, 女운전자 대상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현대자동차는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 중 상황 대처 능력과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체험 이벤트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레이디 스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취지는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여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올 해 '레이디 스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선보이며 실생활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탄생 시켰다.

이번 이벤트는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진·출입 및 주행, 마트 주차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실생활에 필요한 운전 교육을 통해 여성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현대차 측은 여기에 여성 운전자들의 관심이 많은 뷰티 클래스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 이벤트는 세 번에 걸쳐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총 180여명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이벤트는 29일 서울 성수동의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60여명의 여성 운전자들과 함께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여성 운전자들은 13일부터 21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및 당첨자 안내는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양소리기자

"경제계,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 한일협력 비전 제시

한일국교정상화 50년에 따라 새로운 50년을 향한 신 한일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3일 개최된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축사에서 새로운 한일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양국 경제계가 미래 50년을 향한 동반성장을 위해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우선 세계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의 저성장이 된 이 시대에 한일 양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회장은 축사에서 "미래 성장 산업과 자원 및 인프라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시너지 창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동의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회장은 또 "21세기가 진정한 아시아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계가 나서야 한다"며 "특히 역내 경제통합과 아시아 국가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한일간 미래 50년 새 역사 창조를 위해 "기성세대의 긴밀했던 협력 관계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계 차원에서 차세대 리더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허 회장을 비롯해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카키바라 일본경단련 회장 등 양국 재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송정훈기자 sjh@

벤츠 캐피탈 '금리장사' 구설수

2%금리로 자금 조달 후 구매자에 10%금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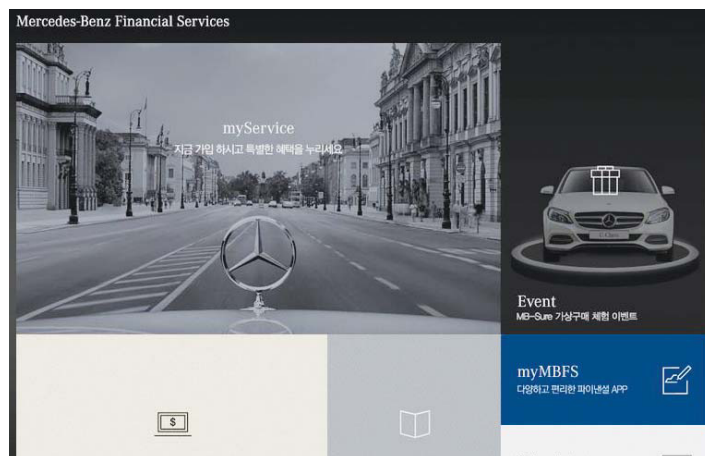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대표 아디 오펙)가 2%대의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8~10%대의 할부금리로 벤츠 차량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벤츠의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과 리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설립된 회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살펴보면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지난 2월 500억원, 3월 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회사채의 조달 금리는 2.26%.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지난해에도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금리는 3.46%였다.

현재 일반소비자가 벤츠파이낸셜서비스를 이용해 차를 구입할 경우 할부금리가 8~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약 5~7%포인트 높은 금리차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4050억원으로 전년도(3675억원)에 비해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할부금융 이자수익은 225억원에서 243억원으로 8% 늘었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대표 아디 오펙)가 2%대의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8~10%대의 할부금리로 벤츠 차량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익잉여금 역시 4년간 급증했다. 2011년 286억원이었던 벤츠파이낸셜서비스의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672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약 57%증가한 수치다.

2013년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매출액 3675억원, 영업이익 19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5.3%로 같은 기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영업이익률 3.1%보다 높았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 관계자는 "그동안 벤츠파이낸셜의 자금은 독일에서 조달해왔으나 자금조달의 현지화를 위해 국내에서 차입금을 늘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9개 여신 전문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이하 리스)약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벤츠파이낸셜서비스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 이용자가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지방세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측은 "현재 내부에서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벤츠 E클래스 보험료 300만원… '헉'

비싼 수리비·공임비에 운전자 불만 목소리 높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 브리타 제에거) 차량의 높은 보험료 때문에 차주와 수입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벤츠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시장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지만 높은 수리비·공임비·대차비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운전자에게 큰 짐이된다.

13일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벤츠E220 블루텍의 차량가액은 6350만원이다. 이 보험사에 운전자 단독보험(28세 기준)은 1년 보험료가 319만원에 책정됐다.

한편 벤츠 E220 블루텍 차량보다 900만원 비싼 기아자동차 K9 3.8모델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연간 200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하다.

LIG손해보험 상담사는 "수입차 보험료는 부품가격과 공임비가 비싸고 수리기간 또한 오래 걸린다"며 "수입차 보험 처리시 대차는 동급의 차로 대체돼 보험료가 비싸져 국산차보다 크게는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고장 등으로 부품을 교체할 때 모두 구비하지 않고 있어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운전자는 이래저래 손해 보는 것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벤츠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상대방이 대차에 관한 보험항목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에게 동급의 렌트카가 지원되고 동급차가 없을 경우 대차비가 차값의 최고 30%까지 지원된다"며 "차주는 대차비 일일 3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는 국내공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공임비가 2.5배 비싼 수준"이라며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입차 보험료, 공임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운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대한항공, 강서구 어린이 초청 견학행사

대한항공은 한국공항공사와 15일까지 서울 강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항공체험과 제주여행 등 견학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강서구 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소외 계층 어린이 총 36명이 대상이다.

견학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13일 오전 대한항공 본사와 김포공항 견학을 마치고 대한항공 비행기로 제주로 이동한다.

제주 도착 후 수목원 테마파크, 천지연 폭포, 에코랜드 관광 등 2박 3일 동안 제주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추억과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한항공이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인근지역사회에 대한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지역 나눔활동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양소리기자

에너지3사, SK·GS에 해외 광구 넘긴다

석유·가스·광물자원公, 부채비율 200% 넘겨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에너지 공기업 3사의 해외 자산과 광구를 SK이노베이션과 GS에너지 등에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권이 이들에게 이양될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며 "유가하락 등 불리한 시황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 매각, 사업권을 SK·GS 등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시황에 따라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적자 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해외 광구의 자산이나 사업권을 민간에 양도해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지난해 해외 광구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하베스트(5억6800만 달러), 미국 앵커(2400만 달러), 영국 다나(2억1200만 달러) 등이 우선 민간기업 양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미국 EP에너지의 지분도 1억3200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광물공사가 1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등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을 산업부가 권고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GS에너지에 매각하거나 사업권 일부를 넘기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경우 민간에 매도가 가능한 해외 지분은 LNG 캐나다 지분 5%(821억원)다.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오른쪽 2번째),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오른쪽 3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실제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생산광구인 '아부다비 육상석유운영회사(ADCO) 생산유전'에 3%의 지분 참여를 통한 조광권 확보에 성공하는 등 사업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에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했으나 원유 생산 등이 시작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산업부가 나서 에너지 3사의 해외광구 지분을 민간기업에 팔려는 것은 이들 공사의 부채비율이 안전선인 200%를 넘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작년 부채는 37조47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81.0%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5217억원(221.3%)이며 광물공사의 경우 4조2020억원(219.5%)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 에너지 3사의 부채 감축 비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외 광구 지분 매각 등의 방법이 안된다면 복리후생 축소나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가는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 등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경영대책반을 꾸리고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공기업 부채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13일 오전 서울 KT 광화문 사옥 EAST에서 김성훈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맞잡은 손 가운데), 장혁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맞잡은 손 우측), 한찬희 파워큐브 대표(맞잡은 손 좌측)가 전기차 이동형 충전 인프라 1만곳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KT제공

KT, 전기차 이동형 충전소 1만 곳 구축

서울시·파워큐브와 MOU

KT(회장 황창규)는 1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파워큐브(대표이사 한찬희) 등과 손잡고 서울 지역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인프라' 1만곳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서울 시내 지사 등 주요 건물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사의 통신인프라를 활용한 충전용 태그 제작지원과 이동형 충전시스템 운영을 맡는다. 서울시는 관할지역 내 이동형 충전용 태그 구축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구축 후 유지를 위해 협조한다. 파워큐브는 이동형 충전인프라 제품과 솔루션 협력 및 관리를 담당한다.

KT, 서울시, 파워큐브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서울시 관할건물과 KT 지사 건물 등의 주차장에 충전 서비스 인식 태그 1만개를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2018년 말까지는 목표를 10만개로 확대해 서울시를 '전기차 충전인프라 세계최다 보유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동형 충전 인프라는 기존 콘센트에 충전 서비스 인식 태그만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 사용자는 이동형 충전 단말기만 있으면 서비스 인식 태그가 장착된 콘센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임은정기자 eunj71@

SKT, 스마트빔 판매 20만대 돌파

SK텔레콤은 스마트빔이 전세계 피코 빔(소형 빔) 시장에서 최초로 2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빔은 2013년 2월 첫 판매 시작 후 2년 3개월만에 20만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판매 실적은 전세계 피코 빔 시장은 물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앱세서리 제품 중 국내 이통사로는 처음이다.

사측에 따르면 스마트빔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과 연결해 대형 스크린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테이크 아웃 시네마'란 신개념을 도입해 기존 빔 프로젝터 시장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빔은 해외 12개국에 연간 1만대 이상 수출되는 성과를 올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홍콩 케세이퍼시픽, 싱가폴 항공 등 해외 항공사의 기내 판매에서도 인기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박철순 SK텔레콤 컨버전스사업본부장은 "스마트빔은 스마트폰과 연계된 앱세서리 상품이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스마트빔 20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14일부터 31일까지 11번가와 함께 스마트빔 구매 신규 고객에게 할인권을 제공하는 '스마트빔의 이상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임은정기자

SK C&C, 인터넷전문은행 공략 강화

SK C&C는 프리미엄서비스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화 정보기술(IT)서비스·비즈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사측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운영을 위한 핵심 금융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제공하는 전담 IT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 C&C는 프리미엄서비스팀에 코어뱅킹·모바일뱅킹 등 분야별 금융 IT서비스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사 주요 기술·서비스 조직과의 협력 체제도 갖췄다.

백형덕 SK C&C 전략사업1본부장은 "미국의 파이서브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체 IT시스템 없이도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IT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한국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SK C&C의 핀테크 뱅킹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 특화 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은정기자

LGU+,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과 함께 중소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진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장(왼쪽)과 이기형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장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동대문 흉물 케레스타… "옛 영광을 다시"

현대百, 10월 아웃렛 오픈 SK네트웍스, 면세점 낙점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 '케레스타'(옛 거평프레야)가 아웃렛과 면세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3월 현대백화점그룹이, 최근엔 SK네트웍스가 케레스타 건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부실채권 사모펀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면 리뉴얼에 나서면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때 서울 동대문 상권을 대표했던 쇼핑몰 케레스타지만 상가임차인들의 보증금문제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건물은 장기간 방치됐고, 지금은 동대문의 흉물로 전락했다.

지난 12일 찾아간 케레스타는 공사철막에 둘러싸인 체 공사 차량 일부만이 드나들 뿐 사람들의 왕래는 없었다. 케레스타 앞쪽에 있는 패션상가인 밀리오레와 두산타워에는 궂은 날씨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줄지어 돌아다니거나 쇼핑하는 일행을 기다리며 부쩍 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1996년 지어진 케레스타는 거평그룹이 옛 덕수상고 자리인 중구 을지로6가에 세운 국내 최초의 정부지정 시범도매센터였다. 지하 6층~지상 22층, 연면적 12만4000㎡ 규모 복합건물로 동대문 1호 쇼핑몰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전(前) 건물주인 거평건설이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도를 내면서부터 주인을 잃었다. 이후 공매로 나왔으나 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18차례나 유찰됐다.

2011년 현 소유주인 파인트리자산운영이 비즈니스호텔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케레스타를 인수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 상대로 권리관계 정리와 명도집행 문제로 결국 시설을 폐쇄하면서 건물은 동대문의 흉물로 전락했다.

파인트리자산운영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케레스타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지난 3월 현대백화점그룹과 지하 4층~지상 9층, 최근 SK네트웍스와 10층~13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흉물스럽게 방치된 동대문 케레스타 건물(사진 왼쪽)과 SK네트웍스가 면세점 입점 후보지로 밝힌 케레스타 조감도.

현대백화점그룹은 케레스타를 10월 도심형 아웃렛으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지역 7곳에서 백화점과 아웃렛을 운영 중이지만 도심권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연내 개장 예정인 송파구 문정동 아웃렛 사업장도 서울 도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케레스타는 현대백화점그룹의 도심권 사업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동대문 상권은 쇼핑몰은 활성화됐지만 아웃렛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며 "현재 10월 오픈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으로, 인근 쇼핑몰에 비해 층별 면적과 영업면적이 넓어 매장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는 케레스타를 시내면세점 후보지로 낙점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의 케레스타가 관광·쇼핑·교통·숙박 등에서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케레스타는 입지적 탁월함과 워커힐면세점의 중국 관광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고려하면 최고의 면세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레스타 인근 상인들도 아웃렛과 면세점이 입점한다는 얘기에 반기는 분위기다. 인근 쇼핑몰에서 여성옷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케레스타가 몇 년간 방치되면서 건물 뒤쪽이 을씨년스러웠다"며 "아웃렛이나 면세점은 쇼핑몰과 상품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인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골라담는 즉석 델리뷔페' 나들이 시즌을 맞아 13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골라담는 즉석 델리뷔페'의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머슬녀'인기에 헬스보충제 잘 나간다

최근 단순히 날씬한 몸매보다는 근육질의 건강한 몸매를 가진 '머슬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헬스·에너지보충제의 구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G마켓(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여성들의 웨이트 기구 및 헬스·에너지보충제 구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품목별 최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체중감량 목적의 다이어트 식품 구매량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 한달 간 여성 웨이트 기구 구매량은 전년 대비 64%증가했다. 특히 턱걸이·철봉 등을 모두 이용하는 치닝디핑기구 구매는 3배 가까운 198%증가했으며, 케틀벨의 여성 구매도 142% 늘었다. 복근운동기구 구매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12%증가했다. 이외에 아령·벤치프레스·바벨 등의 여성 구매도 각각 69%·48%·34% 증가하며 전체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남성들이 몸을 만들 때 섭취하는 헬스보충제의 여성구매도 전년 동기 대비 44%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보충제가 264%, 헬스보충제는 81% 늘었다. 남성 구매 성장세가 22%에 그친 것에 비해 여성 구매 성장세는 폭발적이다. 러닝머신이나 승마운동기구 등의 헬스기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반면 다이어트 보조제는 전년 대비 6% 성장에 머물렀다.

/김성현기자 minus@

법무부, 재래시장 권리금 인정 못하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돼 일부 대규모 재래시장 상인들과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상인은 권리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항을 최초 제안한 곳은 법무부(장관 황교안·사진)로 알려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근거는 임차인에게 투자와 영업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방해금지의무부과 ▲관할 세무서장의 상거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부과 등이다.

하지만 5월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제10조5가 추가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통법이 정한 대규모 점포는 용역의 제공장소가 3000㎡ 이상인 점포다.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쇼핑센터와 3000㎡ 이상의 재래시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건물주인 대기업에게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 유리한 조항이며, 대형 재래시장 상인은 평생 장사를 해도 권리금 한 푼 못 챙기게 되는 조항이다.

13일 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법무부가 최초 제안했으며 심사 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규모 시장상인은 물론 백화점 입점 상인·허가받은 전대차상인들의 권리금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누가 주장한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중대한 실수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바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min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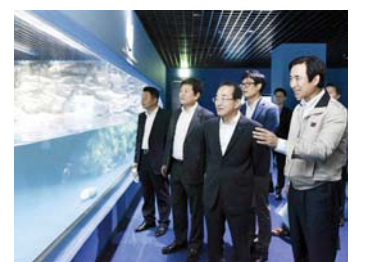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시 책임자 바로 퇴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가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의 재개장에 맞춰 한층 강화된 안전 점검에 나선다.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은 13일 이인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롯데월드를 찾아 직접 건설현장과 시설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인원 위원장을 비롯한 안전관리위원회 임직원들은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한 후 시네마와 아쿠아리움, 공사 중인 콘서트홀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사항 및 예방대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를 대비해 배수구와 펌프 등 단지 주변 곳곳의 시설들을 점검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기존 안전사고 발생 시 2회 경고 후 퇴출하던 제도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했다. 또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의 안전 점검 및 계측을 강화했다.

해외 담배 제조사 '한국이 봉인가?'

국산 담뱃잎 수매 10년 넘게 "검토중"… 기부도 인색

해외 담배 제조사들이 국산 담뱃잎을 여전히 수매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 담배 생산시설을 건립만 해놓고 원료 담뱃잎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무늬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던힐을 판매하는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코리아는 2002년 경남 사천 공장 건립 당시 사용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어려운 국내 담배농가의 담뱃잎만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는 것.

말로보 등을 판매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산 담뱃잎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계획만 갖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다.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JTI)코리아도 관련 계획이 없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담뱃잎을 소싱하는 조직

이 따로 있다"고 "앞으로 국산 담뱃잎 수매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담배제조사는 "담뱃잎 수매는 상업적인 결정인 만큼 국내 담배 농가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담뱃잎 수입 배경에 대해 '가격'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 국산 담뱃잎이 해외 수입 담뱃잎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힘들어하는 농가들은 담배 제조회사들이 국산 잎담배 사용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농가와 농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외 담배제조사들은 매출 성장 속에서도 사회공헌에는 인색했다. 각종 시설기증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공헌 앞장서고 있다고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JTI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은 각각 7030억원, 4521억원, 235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부액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필립모리스 3억8000만원, BAT코리아 6000만원, JBI코리아 2억1300만원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규모는 각각 0.05%, 0.01%, 0.09%로 국내 기업들의 평균 0.1% 수준에 못 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배 산업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만큼 담배회사의 책임있는 기업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유방건강 위해 25만명 뛰었다"

'핑크리본' 캠페인… 여성 암 환우에 메이크업 강습
'희망가게' 한부모 여성 지원… 공병 수거 '그린 캠페인'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은 화장품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속성을 갖고 전개하는 활동들은 성과 역시 남다르다.

2008년부터 시작된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와 탈모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 암 환우들에게 메이크업 및 피부관리·헤어연출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캠페인이다. 특히 아모레 카운셀러와 교육강사가 자원봉사자로 참가한다. 지난해까지 이 캠페인에는 총 9221명의 여성 암환우와 2904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가했다. 2011년에는 중국으로 확대해 지난해까지 약 740여 명의 환우가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하는 '핑크리본' 캠페인도 올해 15주년을 맞았다.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닌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만 약 46만 명에 이르며 유방 건강강좌 수강자는 18만 명, 유방암 무료 예방 검진을 받은 사람은 2만 7000명을 기록했다. 또 저소득층 유방암 수술·치료비로 20억원이 지원됐으며 유방건강 관련 학술연구 지원에도 12억원이 전달됐다.

대표적 행사인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지난해까지 약 25만 4000여 명의 참가를 통해 총 2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생활안정을 이루도록 힘쓰고 있다. 선발된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는 최대 4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연리 2%,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2003년 기금 조성 이후 2004년 1호점을 개설했으며, 2013년에는 200호점 개설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화장품 기업인 만큼 공병을 이용한 환경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그린사이클'은 2009년 이니스프리 매장의 '공병수거 이벤트'에서 시작돼 2010년 아리따움, 2012년 에뛰드하우스 등 전국 아모레퍼시픽 매장으로 확대됐다. 공병을 가져오면 멤버십 포인트를 공병 1개당 500점씩(에뛰드는 1개 300점씩) 적립해 주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맥심커피 마시고 함께 향기로운 여행 떠나요"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13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트래블 위드 맥심(Travel with Maxim)' 캠페인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할인점에서 카누·모카골드·화이트골드 등 맥심커피를 구입한 뒤 제품에 붙어있는 스티커 속 응모번호를 확인해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당첨자 1000명에게 100만원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동서식품 제공

유아용품 격전지 된 中 온라인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3천조 예상

저출산에 대한 돌파구로 유아용품 업계가 중국 시장 가운데서도 진입 장벽이 낮은 온라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아동복·용품 전문기업 아가방앤컴퍼니는 최대주주인 랑시그룹이 중국 온라인 판매대행사인 '러위촌(若羽臣)' 지분 20%와 온라인 쇼핑몰 '밍싱이추' 지분 5%를 각각 인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랑시그룹은 러위촌 지분을 1770만 달러(약 194억원)에, 밍싱이추 지분을 750만 달러(약 82억원)에 각각 사들였다.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시장에 아가방앤컴퍼니의 브랜드를 적극 마케팅해 중국 유아시장을 보다 빠르게 선점할 계획이다.

러위촌은 티몰·쥬메이·징동 등 중국의 인기 온라인 쇼핑몰에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켜 운영·마케팅·판매 등을 대행하는 회사다. 현재 독일 유아·임산부 스킨케어 브랜드 '사노산'과 이탈리아 구강 전문 브랜드 '블랑스' 등 세계적인 용품 브랜드 등과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2억3300만 위안(약 402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밍싱이추는 회원수가 6000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대표적인 패션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40대 미만 젊고 세련된 여성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아가방앤컴퍼니는 전했다.

랑시그룹은 기존 여성의류 중심의 밍싱이추에 유아 전용 카테고리를 추가해 아가방앤컴퍼니를 브랜드몰 형태로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세실업 계열사인 한세드림은 지난해 컬리수에 이어 올 하반기 모이몰른을 티몰에 입점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모이몰른은 지난해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론칭한 유아복 브랜드다.

제로투세븐의 경우 자사 쇼핑몰을 통해 역직구(해외 고객이 국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 시장을 공략한다. 내년 4월께 제로투세븐닷컴에 중국어 서비스와 중국 소비자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이타오족' 이라고 불리는 중국 내 해외 직구족은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

빈폴레이디스 '꽃으로 물든 드레스'

제일모직(대표 윤주화) 빈폴레이디스는 플라워 프린트를 활용한 드레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실루엣으로 개발·적용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붓 터치 느낌의 빅 블루 플라워, 킨포크 플라워 드레스는 물론 강엄·체크·기하학적 패턴 등을 활용해 심플하고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또 A라인 실루엣과 민소매 디자인을 중심으로 드레스 밑단에 레이스 패치, 바이어스(직물 올의 방향에 대해 빗금 형태로 디자인)로 처리하는 등 차별화했다.

오뚜기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바백미'

혈압 내리고 기억력 올리고 백미보다 가바 함량 10배 ↑

국내 첫 벼 가공기술 도입 물만 부으면 바로 조리 가능

오뚜기(대표 이강훈)가 출시한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바백미'엔 특별한 성분이 함유돼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바(GABA-Gamma Amino Butyric Acid)란 1952년 미국의 생화학자 유진 로버츠가 발견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물질로 혈압상승억제, 스트레스완화, 기억학습촉진 등에 도움을 준다.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바백미는 국내 최초의 벼 가공기술로 만들었으며 가바 함량이 일반 백미와 견줘 약 10배, 일반 현미 대비 약 2.5배가 높은 게 특징이다.

환경친화적인 씻어나온 쌀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없이 물만 부으면 바로 조리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씻어나온 오뚜기쌀 가바백미는 환경친화적인 씻어나온 쌀로 별도의 과정 없이 물만 부으면 바로 조리를 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오뚜기의 벼 가공기술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밥맛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한 제품이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오 크로아티아, 자유여행객 겨냥 '예스 2 +1' 인기

파파라치컷 사용권·맛집 할인카드 구성

최근 눈으로만 보고오는 패키지 여행에서 벗어나 나만의 일정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체험하는 자유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오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자유여행자를 대상으로 '예스 2+1'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자그레브와 듀브로브니크 파파라치컷 사용권과 예스발칸 맛집 할인카드로 자유여행에 유용하다.

예스발칸 맛집 할인카드는 크로아티아의 맛집을 방문해 전통요리를 경험하고 음식값을 할인 받는다. 파파라치컷은 자유여행 기간 중 자그레브와 듀브로브니크 올드타운에서 내가 느꼈던 순간의 감정과 표정을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빌 게이츠, 톰 크루즈 등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휴가지이고 유럽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로 꼽힌다.

김승욱대표는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특유의 몽환적 매력을 여행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여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크로아티아'는 2009년에 설립된 발칸반도 전문여행사(법인명-다익게더여행사)로 '6인이 떠나는 맛있는 여행'상품을 판매중이다.

/최치선기자 chisunti@

강강술래 "선생님은 10% 깎아드려요"

교원증 지참 전 메뉴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 및 가족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이달 31일까지 교원증을 지참한 방문 고객에게 전 메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포인트적립 및 중복할인 불가)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 술래양념(520g)으로 구성된 '감사세트'를 36%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또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박스(350㎖·10팩)는 2만5200원, 중용량박스(500㎖·10팩)는 2만8600원, 대용량박스(800㎖·10팩)는 4만3200원에 각각 60% 할인한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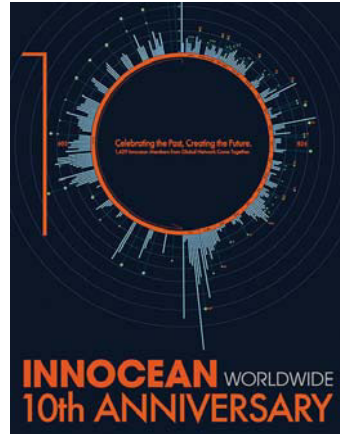
/김보라기자 bora6693@

'창립 10년' 이노션 "2025년 글로벌 톱 티어"

이노션 월드와이드(대표이사 안건희)가 17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이노션은 창립 기념일에 앞서 14일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2025 글로벌 탑 티어 마케팅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1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국내시장 선두 광고회사로 자리매김하며 전세계 17개국 22개 거점 1600명의 인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넘어서 올해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13일 안건희 이노션 대표이사는 "최근 두바이에 17번째 해외법인을 설립해 '전 세계 글로벌 거점 확보'라는 1단계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글로벌 탑 티어(Global Top Tier·선두그룹)라는 2단계 목표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션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해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10%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노션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7447억원 규모다.

/송정훈기자 sjh@

이화융합의학硏-CJ, 유용미생물 연구 맞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이화융합의학연구원(연구원장:김윤근)은 12일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연구소장 문병석)에서 CJ제일제당과 '미생물의 유용성 및 기능성의 작용원리를 찾기 위한 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상호 기술교류를 통해 효능이 있는 좋은 미생물의 기능성을 공동 연구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유용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바이오 피부 유산균 CJLP133'에 사용되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 등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특히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나노소포(미생물이 생성하는 나노 입자 크기의 유용물질)기술'로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과 그 물질의 작용 원리 등을 자세히 밝혀내고, 이를 통해 한국형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은 향후 CJ제일제당과 지속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서 찾아낸 미생물에 대한 공동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다.

'K웹페스트' 7월 서울서 열린다

오는 7월 30일, 31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아시아 최초 국제영화제 'K웹페스트(KWEB FEST)'가 개최된다.

특히 K웹페스트(KWEB FEST)'는 세계최대영화제 'LA웹페스트'와 협력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웹시리즈'란 5~10분 내외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동영상 시리즈 물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감상하는 디지털 맞춤형 콘텐츠를 말한다.

JS탑엔터테인먼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리는 'K웹페스트(www.kwebfest.com)는 JS탑엔터테인먼트의 은성희 대표이사가 조직위원장을, 할리우드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 강영만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K웹페스트 공모전의 참가대상은 웹시리즈 관련 종사자, 학생 등 웹시리즈에 관심 있는 국내외 모든 영화인이다. 응모 분량은 3편 이상 웹시리즈 게시물로 장르는 자유다. 응모방법은 'K웹페스트 공식 홈페이지(www.kwebf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6월 26일 최종 수상작이 발표된다.

대우건설 "동반성장 위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우건설의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기술연구 분야에서는 기술설명회 실시, 공동연구, 공동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대우건설과 협력회사가 쌍방향으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선정된 협력회사에 기술지원, 공동특허출원, 거래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성과공유제'가 있다.

#대우건설과 한양대 부설 세라믹연구소인 세릭은 공동으로 콘크리트 균열보수재 '파워클리너'제품을 개발, 특허 출원했다. 공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업체 세릭에 대우건설 선임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이뤄낸 성과다. 대우건설 측은 제품 기술 개발에도 6000만원을 제공했다. 출원된 파워클리너는 분필 형태의 보수재로, 균열부에 물을 뿌리고 바르는 것만으로 콘크리트 보수가 가능하다. 자체 개발한 균열자기치유 기술이 적용돼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이 높다. 국내 최초로 건설회사가 상품화해 일반에 판매한 건설자재이기도 하다.

협력사 특허 출원에 아이디어·자금 제공

지난해 10월에는 중소기업 7곳과 함께 구조안전 분야 엔지니어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기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가졌던 인적자원·연구기술력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이다. 대우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구조안전분야 전문 중소기업 7곳의 실무능력을 결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자금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협력회사에 66억원의 운용자금을 1년간 무이자로 지원했다. 26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중 259억이 대출 완료됐다. 결제대금 지급에서는 현금결제비율을 88%까지 올렸다. 대금결제기일은 20일까지 줄였다.

교육 지원 부문은 협력회사 대표의 경영교육과 임직원의 실무능력 강화를 주축으로 진행 중이다. 매년 수차례에 걸쳐 우수·주요 협력회사 CEO를 대상으로 경영전략,

파워클리너. /대우건설 제공

인문,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특강을 연다. 협력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집체 교육과 임직원 대상으로 현장 관리 등의 실무 교육도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원가관리, 건설산업기본법, 노무관리, 하도급법 등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지원했다. 협력회사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 중이다.

공정거래를 위한 자구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윤리 헬프라인도 만들었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기술경쟁력과 부가가치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해외진출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대우건설은 올해도 계속해서 협력회사와 함께 글로벌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적 재산권 양도, 자금지원,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라며 "협력사가 대우건설과 함께 해외에 동반 진출할 기회를 넓힐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반도건설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

분양돋보기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경기도 김포에서 최단 완판 기록을 세운 반도건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일주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한 '김포한강 반도유보라3차' 후속 단지를 곧장 선보이며 기록을 갱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상업시설이 한 걸음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Cc-01블록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는 지하 2층, 지상 34층, 4개동, 46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8㎡A 95가구 ▲78㎡B 91가구 ▲78㎡C 94가구 ▲78㎡D 31가구 ▲87㎡ 150가구로 구성됐다.

한강신도시 대 상권인 구래동중심상업지구와 마주했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라시드와 손을 잡고 만든 '카림애비뉴' 스트리트형 단지 상가도 들어선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과 도보 5분 이내 거리이며, 서울·수도권으로 오가는 버스의 집결지 복합환승센터도 인접했다. 지하철·버스 모두 시발(始發)역이라 앉아서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앞으로는 가로공원이, 동측으로는 10만4000㎡ 규모의 호수공원이 있어 산책·운동 등을 즐기기 쉽다. 솔터초·고교도 도보 거리라 자녀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하다.

◆주상복합같지 않은 평면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는 주상복합 아파트임에도 주거와 상업 기능을 분리해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면을 적용했다.

모델하우스에는 78㎡A·C타입과 87㎡ 3개의 유닛이 마련됐다. 이 중 주력평형인 78A타입(32평형)은 4-bay(방+방+거실+방) 구조의 전형적인 판상형 평면을 선보였다. 가장 익숙한 평면이면서도 대형 아파트 못지않은 현관 수납장과 거실 키큰장, 주방 팬트리 등은 차별화된 아이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빛이 잘 들지 않는 드레스룸에 창을 내 습기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고, 안방에도 전면과 측면으로 2개의 창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채광·환풍에 민감한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

김포한강 반도유보라4차 87타입 거실

◆ 중도금 60% 무이자

분양가는 78㎡는 2억9000만~3억4000만원대, 87㎡는 3억2000만~3억5000만원대로 책정됐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경우 9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추가된다.

14일과 15일 1·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1일, 계약은 26~28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장기동 976-30번지에 마련됐다. 2018년 1월 입주 예정. /박선옥기자 pso9820@

종합건설업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 시위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침을 반대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동문건설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 분양

사이언스파크, 성균관대복합역사 등이 조성되는 수원 율전동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아파트가 선보인다.

동문건설은 경기도 수원 율전동 365-1번지 일대에서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대 24층, 전용면적 ▲59㎡ 147가구 ▲84㎡A~C 552가구 등 전체 699가구 규모다.

국철1호선 성균관대역을 비롯해 42번 국도,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쉽다. 특히 성균관대역은 2016년 쇼핑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거듭난다. 5월 착공 예정으로 민자역사, 북부역사, 환승주차장 3개 시설로 개발된다. 이 중 민자역사에 영화관,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 투시도.

쇼핑센터, 근린시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인근으로 신개념 연구집약 산업단지인 수원 R&D사이언스파크(2019년 완공 예정)도 조성된다. 총 30만㎡ 규모로 환경기술산업(ET), 생명공학산업(BT), 나노기술산업(NT)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이 지어진다. 상업·주거·지원시설과 국내 유수의 대형병원도 입주할 예정이다

롯데몰,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서호공원, 일월저수지, 성균관대 식물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상율초, 천일초, 율전초·중, 경기체중·고, 영생고,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가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동문건설은 31년간 4만여 가구를 지은 건설명가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율전동 일대는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췄음에도 대부분 입주 1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향후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굿모닝힐'이 수언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국철1호선화서역 인근 KT&G 부지 내 있다. 문의 : 031-246-1112 /박선옥기자

솔로 활동 나선 비스트의 **장현승**

그룹 비스트와 혼성 유닛 트러블메이커로 활동하던 장현승이 최근 첫 솔로 앨범 '마이(My)'를 발표했다. 이번 활동의 콘셉트는 '19금 순정남'이다. '19금'과 '순정'이라는 모순된 두 단어의 조합은 타이틀곡 '니가 처음이야' 뮤직비디오를 통해 풀어냈다. 배우 황승언과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장난기 넘치는 그의 트러블메이커의 '퇴폐적 섹시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선 좀 까져 보여야 해"

◆ 힘 뺀 장현승, 괜찮다

여섯 명에서, 두 명, 그리고 혼자. 장현승은 비스트 멤버 중 한 명에서 트러블메이커 현아의 남자로, 다시 솔로 가수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비스트가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주로 선보였다면 트러블메이커는 두 남녀의 호흡에서 느낄 수 있는 섹시함을 내세웠다.

"이번에도 섹시 콘셉트이긴 하지만 전 좀 귀엽게 했다고 생각해요(웃음). 트러블 메이커와 비스트 로 활동할 땐 너무 힘만 보여준 것 같아요. 대중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비스트보단 트러블메이커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 땐 빼빼 말라가지고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약간 퇴폐스럽기도 했잖아요. 그걸 덜어내고 싶었어요. 앨범 재킷도 카리스마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는 이번에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색깔을 벗어나고자 했다. 랩 피처링도 비스트 래퍼 용준형이 아닌 언더신 래퍼 기리보이와 토끼의 도움을 받았다.

"비스트의 색깔이 싫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힙합 R&B 장르를 기반으로 한 앨범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 회사엔 그런 색깔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나 비스트의 연장선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들었을 때도 그냥 장현승 솔로앨범 같고요."

19금 순정남 콘셉 '마이' 발표
카리스마 보다 캐주얼 하게
트러블메이커 이미지 벗고
그룹 때와 달라보이려 노력

◆ 내가 바로 '장초딩'

그는 자신의 성격을 '초딩같다'고 정의했다. 초등학생처럼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지만 그런 모습은 '친한 사람'에게만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과묵한 청년에 가깝고, 발랄한 모습은 다른 멤버들의 몫이었다.

실제로 그는 인터뷰 내내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이어갔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신중하게 단어 하나, 하나 내놓는 그의 모습에서 무대 위 '날라리 같은 장현승'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스트로서 공식석상에 서면 다른 멤버들이 말 잘하니까, 전 그냥 있어요.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갈 땐 세트 바닥이 부서지거나 내 다리가 부서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돌변해요.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무대에만 서면 순식간에 바뀌는 비결이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던 그의 입에서 놀라운 단어가 튀어나왔다.

"그냥 (가사가) 나쁜 음악을 좋아하다보니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좋아하는 걸 따라가고,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쁜 가사와 멜로디의 발라드와 거리가 먼 곡들만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웃음). 사실 전 가수는 무대 위에서 좀 까져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음악을 하는데 풍기는 이미지가 모범적이면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까져 보이고 뭔가 놀았을 것 같은? 아, 물론 실제 인성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날티는 다른 거죠. 오해하시면 안돼요(웃음)."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가족액터스와 의리 계약

배우 **박시연**이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연기 레이블 가족액터스와 계약했다. 박시연은 "가족액터스 양병용 대표와는 오랫동안 현장 매니저와 배우로 동고동락해서 서로 잘 알 뿐 아니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이"라며 "세심함과 배려심에 믿음을 갖고 함께하게 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미쓰 와이프' 코믹 영화 컴백

배우 **엄정화**가 영화 '미쓰 와이프'를 통해 반전 캐릭터로 컴백한다. 영화는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엄정화)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로 한 달 동안 대신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송승헌, 김상호, 라미란, 서신애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정엽 새 뮤직비디오 주인공

배우 **이종석**이 13일 공개된 가수 정엽의 정규 3집 '메리 고 라운드' 타이틀곡 '마이 밸런타인'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 등장했다. 이종석은 영상에서 따뜻한 미소로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2013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정엽의 정규 3집은 15일 오전 0시에 발매된다.

시트콤에서 옛 연인 호흡

가수 겸 연기자 **손담비**와 배우 **이이경**이 다음 달 14일 첫 방송될 올리브TV '유미의 방'에서 헤어진 옛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다. 작품은 30대 싱글녀 방유미(손담비)를 중심으로 싱글족 여성 방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일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포맷의 시트콤이다.

'K-con 2015 Japan'에서 일본 관람객이 한국 음식과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홍콩에서 열린 2014 'MAMA'에서 현지 바이어들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CJ E&M 제공

CJ E&M 'K-con', 상생 한류의 아이콘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가온한국어는 요즘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오래전부터 아시아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던 그들은 최근 'K-con'에 참여하게 됐다. 한류의 인기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한글 수요에 맞춰 자신들이 개발한 콘텐츠의 시장성과 상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온한국어는 행사를 통해 일본 현지 기업 세 곳과 상담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10년 이상 한국 드라마를 수입·배급해온 일본 현지 기업 '콘텐츠세븐'과 지속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다. 현지 고객들을 상대로 한 판촉 행사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가온한국어 손원호 대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한류 팬에게 한국어를 알렸고, 현장 판매와 체험행사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콘서트·컨벤션 융합… 中企 해외고객·바이어 확보 발판 마련

◆ 부스비·항공권 등 물질적 지원

CJ E&M이 기획·주최하고 있는 'K-con'은 대표적인 상생 한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류의 확산이 문화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집객 효과가 큰 '콘서트'와 한국 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을 융합했다.

한류 붐을 타고 케이팝을 듣기 위해 모인, 한국에 관심이 많은 관객을 타겟으로 한국의 브랜드를 알린다는 취지로 201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번째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미국 LA에서 진행한 행사는 4만2000여 명의 방문객이 모였다. 매년 방문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K-con에는 150여 개 이상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처음에는 업체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CJ E&M 김찬혁 차장은 "행사 초기에는 다른 집단 판촉전과 어떻게 다를까 의구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과 바이어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업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받고 CJ E&M과 중소기업청이 함께 뽑는다. 초기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CJ E&M에서는 중소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홍보 활동과 기본적인 설치·부스비, 항공권, 통역 등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 업체는 추가되는 물류비와 출장비 등만 부담하면 된다.

◆ 코트라와 협업 계약까지 진행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지 업체들과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 김 차장은 "지난해 MAMA 때 중화권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었더니 계약 성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는 판촉전과 함께 계약도 하는 두 가지 트랙을 하기 위해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의 협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CJ E&M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도 56개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행사 후 코트라 조사 결과, 1년 이내 예상 계약액은 약 68억 원, 3년 이내 예상 계약액은 2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참여기업의 94%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한 업체들은 판로 개척과 네트워크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1년에 한 번 진행하던 K-con은 그 규모를 키워 올해 상반기에만 일본에 이어 미국 LA, 뉴욕에서 세 번 열 계획이다. 김 차장은 "지금은 케이팝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화, 방송 등으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이유리기자 yuril@metroseoul.co.kr

"팬 마음에 '무단침입' 하겠다"

몬스타엑스 데뷔… 서바이벌 통해 멤버 선발

데뷔 서바이벌 '노머시(NO MERCY)'를 통해 선발된 7명으로 구성된 신인 그룹 몬스타엑스(MONSTA X)가 팬의 마음에 '무단침입'하겠다는 당돌한 출사표를 던졌다.

몬스타엑스(멤버 주헌·셔누·기현·원호·형원·민혁·아이엠)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번호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섰다.

이들은 '노머시' 출연 당시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간의 설움을 모두 쏟아내듯 열정적인 무대를 펼쳤다. 첫 무대는 '노머시' 파이널 미션 단체곡이었던 '출구는 없어'로 탄탄한 드럼 사운드와 덥스텝 특유의 파워풀한 베이스가 돋보였다. 데뷔타이틀 '무단침입'은 몬스타엑스의 도전적인 자세를 노래한 트랩 비트 장르로 강인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이날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씨스타의 소유와 효린은 "팬의 마음에 '무단침입'한 몬스타엑스의 매력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없다'"고 말하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신념과 행동의 괴리, 그 속의 긴장감

film review

순수함 잃은 사회인의 단면 스릴러로 포장

/장병호기자 solanin@

■ 악의 연대기

'악의 연대기'(감독 백운학)를 보고 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뜻밖에도 사회생활의 애달픔이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점점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드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비춰 보였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최창식(손현주)은 상사와 부하들의 신임을 모두 받고 있는 경찰서 강력반장이다. 출세를 위해 묵묵히 달려온 그는 이제 대통령상 표창과 함께 그토록 기다려온 승진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평탄했던 그의 삶을 뒤흔든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최창식은 자신이 은폐한 시체가 건설 현장 크레인에 걸린 채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악의 연대기'는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관객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봐야 한다"고 후배에게 조언하는 최창식은 신념이 확고한 사람처럼 보인다. 선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손현주가 최창식을 연기한다는 사실도 그가 선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최창식을 습격한 괴한이 그가 저지른 비리를 폭로할 때, 우리는 최창식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최창식을 마냥 미워할 수도 없다. 성공을 위해 때로는 원칙을 무시하고, 윗사람에게는 아양도 떨면서 아랫사람은 가족처럼 챙겨주는 최창식의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의 단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념과 행동의 괴리에서 느끼는 최창식의 고뇌는 '악의 연대기'가 그려내는 긴장감의 정체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 사건을 맡게 된 최창식은 사건 수사 과정 속에서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는 스릴러로 포장돼 있지만 그 속에는 사회 초년생 시절의 순수한 열정을 뒤로 하고 눈앞의 성공과 출세만을 달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다.

다만 최창식을 중심으로 쌓여온 팽팽한 긴장감은 반전이 공개되면서 맥이 풀려버리는 감이 없지 않다. 영화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동성애를 소재주의적으로 끌고 온 점도 불편하다. 반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영화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14일 개봉.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무배당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희망플러스 자녀보험II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1226호(2015.4.28)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콜센터 :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tvN '삼시세끼 – 정선편' 포스터 /CJ E&M 제공

이서진, 감자 사랑에 빠졌다

'삼시세끼-정선편' 컴백 옥택연·김광규와 호흡

'꽃할배'들을 모시고 그리스를 다녀왔던 이서진이 이제 강원도에서 감자와 사랑에 빠진다.

13일 열린 tvN '삼시세끼-정선편' 제작발표회에서 나영석 PD는 "지금 이서진은 감자에 미쳐있다"며 "강원도에 레몬을 심어서 레몬 소주를 먹겠다는 의욕까지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삼시세끼-정선편'은 지난해 10월부터 방송됐던 가을편을 이은 것으로 앞으로 4개월간 봄·여름편이 방송된다. 나 PD는 "첫 기획 당시부터 봄·여름·가을·겨울 일 년을 한 시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첫 번째 정선에서 가을을, 어촌편 만재도에서 겨울을 보여드렸고 다시 정선편을 통해 봄과 여름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쯤은 어떻게 싹이 나서 꽃이 달리고 열매를 맺는지, 수확했을 때 땀이나 노동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가을편과 가장 다른 점이라면 원년 멤버 이서진, 옥택연과 함께 김광규가 새 멤버로 투입된 것이다. 나 PD는 "김광규는 사실 일손이 부족해서 모셨다. 그런데 '요즘 허리가 안 좋다'며 일하러 와서 계속 누워만 있는다. 케미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시청률이 높았던 '어촌편'에 대한 부담에 대해 나 PD는 "어촌편은 어촌편만의 매력이 있었고, 차승원과 유해진이 가진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다. 정선편도 정선편만의 매력이 있다"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정선의 봄과 여름의 모습을 담을 '삼시세끼-정선편'은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후속으로 15일 오후 9시 45분 첫 방송된다.

/이유리기자 yuril@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임진강 황복으로 만나는 한국인의 밥상

◆ KBS1 '한국인의 밥상' 오후 7시30분

'임진강의 귀한 손님, 황복이 돌아왔다'편이 방송된다. 봄의 귀한 손님 황복을 만나러 임진강을 찾아가 황복 맑은탕부터 황복찜까지 임진강 어민들이 차린 귀한 황복 한 상을 만나본다. 개성이 고향인 임진강 어부 황진재씨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먹는 황복막걸리회와 황복된장찌개로 지나온 날의 아픔과 그리움을 달랜다.

◆ tvN '뇌섹시대 – 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지인특집' 3탄이 이어진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 수석 입학에 빛나는 김지석의 지인이 등장해 문제적 남자들을 위협한다. 옥스퍼드 졸업생이 직접 목격한 현실 존 내쉬의 모습부터 수학 천재들의 공부법을 공개한다.

◆ KBS2 '해피투게더 3' 오후 11시10분

'5월의 여왕' 특집이 방송된다. 원조 컴퓨터 미인 '독설의 여왕' 황신혜,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몸매의 여왕' 이본, 연애 칼럼니스트 '연애의 여왕' 곽정은, 예능 대세 '대시의 여왕' 이국주, KBS 아나운서계의 샛별 그냥 '여왕' 이현주가 출연한다.

◆ JTBC '님과 함께 시즌2 – 최고의 사랑' 오후 9시40분

새 신부 안문숙이 과감한 유혹으로 남편 김범수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든다. 새신랑 김범수는 안문숙의 청순한 민낯을 처음 보고 "예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입으로 요리하는 장서희·윤건 커플은 개성 만점 귀여운 첫 식사 현장을 공개한다. /정리=이유리기자 yuril@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3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29회)	15 불굴의 차여사 (90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07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2회) 55 불후의 재발견 (2회)	55 압구정 백야 (148회)	0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24회)	00 맨도롱 또똣 (2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14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레미제라블>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로 간 농부들 지구촌을 경작하라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1회)	
24시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인성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23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4회) (재)	10 코미디 빅리그 (120회) (재)			00 U–571	◆ 프로야구 18:30 NC vs LG (SPO TV+, SPO TV) 두산 vs SK (SKY TV) 한화 vs 삼성 (KBS N SPORTS, SPO TV2) KT vs KIA (SBS SPORTS, IB SPORTS) 넥센 vs 롯데 (MBC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51·61·62회)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18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SNL 코리아 시즌6 (13회) (재)	30 올리브쇼 2015 (10회)	00 쇼킹 70억 (2회)	20 주말 N 영화 (512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회)	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12회)	30 한식대첩 시즌2 (11회)	00 시저 밀란의 도그 위스퍼러 6 (8회)	40 히트	
22시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3회)		
23시	00 썰전 (115회)	00 문제적 남자 (12회)	00 오늘 뭐 먹지? (48·43회)	00 컴뱃 레스큐 6부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26회)	20 수요미식회 (16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4회)	00 백 투 더 네이처 (10회)	00 김종욱 찾기	

추신수가 12일(현지시간) 열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AP연합뉴스

추신수, 솔로 홈런 포함 3안타

캔자스시티전 1회 첫타석서 쾅! 4경기 연속 선발 강정호 무안타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4번째 홈런을 포함해 한 경기 3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1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1회 말 기선을 제압하는 선두 타자 홈런을 터뜨렸다.

상대 우완 선발 투수 에딘손 볼케스의 초구 볼을 잘 고른 추신수는 2구째 높은 직구가 들어오자 번개처럼 방망이를 휘둘러 우측 펜스를 직선타성으로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시즌 타점은 14개로 늘었다.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3회와 5회 각각 2루 땅볼,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4-5로 뒤진 7회 4번째 타석에서 바뀐 투수 루크 호체바의 커브를 퍼올려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를 날렸다.

5-6으로 끌려가던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마무리 투수 그레그 홀랜드의 몸쪽 높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로 출루하고 나서 대주자 제이크 스몰린스키로 교체됐다. 이날 3안타를 몰아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14(103타수 22안타)까지 올라갔다.

텍사스는 애드리안 벨트레의 중전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10회 연장에서 알렉스 고든에게 우월 솔로포를 얻어맞아 6-7로 무릎을 꿇었다.

4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며 주전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강정호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경기에 6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연속 안타 행진을 5경기에서 마감했다. 4회 무사 1, 3루 득점권 찬스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시즌 타율은 0.333에서 0.309(55타수 17안타)로 낮아졌다.

다만 수비에서는 깔끔한 플레이를 선보였다. 3-1로 앞서고 있던 6회말 무사 3루에서 필라델피아 2번 타자 프레디 갈비스의 직선타가 빠르게 날아오자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타구를 잡아내 추가실점을 막았다. 피츠버그는 이날 7-2로 승리, 4연승을 달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바르셀로나 삼각편대' 날았다

메시 시작 네이마르 마무리… 챔스 결승행

리오넬 메시의 발끝에서 시작된 '바르셀로나 삼각편대'가 2골을 몰아치며 FC바르셀로나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이끌었다.

바르셀로나는 13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2-3으로 졌다. 하지만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둔 바르셀로나는 1, 2차전 합계 5-3으로, 뮌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통산 8번째 결승 진출이다. 이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13회) AC밀란(이탈리아·11회) 바이에른 뮌헨(독일·10회)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한다.

다득점이 필요했던 뮌헨은 전반 7분 사비 알론소가 오른쪽에서 찬 코너킥을 베나티아가 헤딩 슈팅으로 골대를 갈라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는 메시-수아레스-네이마르로 연결되는 삼각편대가 있었다.

전반 15분 메시가 '킬패스'를 찔러주자 수아레스는 주특기인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으로 골지역 오른쪽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왼쪽에서 뒤따라오던 네이마르는 공을 넘겨받아 침착하게 동점골을 넣었다.

전반 29분에도 메시의 헤딩 패스가 수아레스의 발을 거쳐 네이마르에게 향했다. 네이마르는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골을 넣었다.

이날 2골을 터트린 네이마르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9골을 넣어 득점 선두인 메시(10골)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루이스 아드리아누(샤흐타르 도네츠크·이상 9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뮌헨은 후반 14분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후반 29분 토마스 뮐러가 추가골을 넣었지만 1차전 점수차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르셀로나는 내달 7일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레알 마드리드-유벤투스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김민준기자

13일 2015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확정지은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젊은 사자' 구자욱, 멀티플레이어 변신

구자욱

우익수로도 만점 수비

'젊은 사자' 구자욱(22·삼성 라이온즈)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구자욱은 삼성 주전 1루수 채태인(33)이 옆구리 부상을 털고 돌아오면서 우익수로 자리를 이동했다. 7번에 주로 서던 타순도 2번으로 변경했다.

올해 처음으로 1군 무대에 입성한 그에게 모두 낯선 자리지만, 그는 12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2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전해 3회 빠른 발로 내야안타를 만들고, 8회에는 1타점 2루타를 날리는 등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명품 수비도 뽐냈다. 5회초 이성열의 펜스를 때리는 타구를 정확한 펜스 플레이로 연결했고, 8회에는 정근우의 안타성 타구를 넘어지며 잡았다. 안타라고 생각한 1루주자 김경언은 3루까지 내달리다 귀루하지 못해 아웃당했다.

구자욱은 "상무 시절 우익수로 뛰었다"며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 사자' 구자욱이 점점 멀티 플레이어로 성장해 가며 류중일 감독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한화 불펜 새 얼굴 찾기 주력

김성근 감독 원정에도 2군 투수 특훈

한화 이글스가 여름을 대비해 '투수 특별 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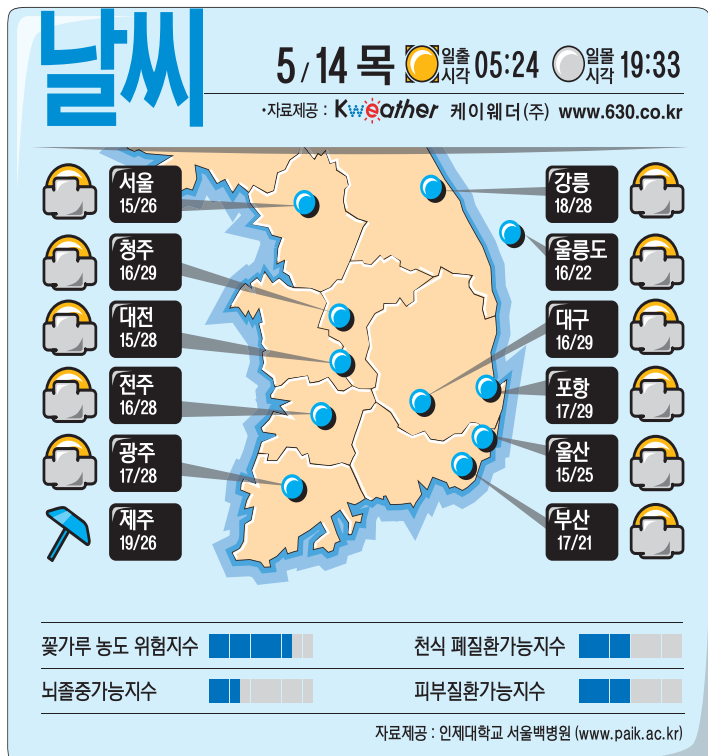
김성근(73·사진) 한화 감독은 12일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경북고에서 특별 훈련을 했다. 원정길 특타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투수 특별훈련은 이례적이다.

이날 김 감독은 왼손 베테랑 마일영(34)과 2015 1차지명 좌완 신인 김범수(20)를 '특훈' 명단에 넣었다. "던지는 걸 가까이서 보려고"라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최근 대전 홈경기가 있을 때, 2군 투수들을 대전으로 불러 직접 투구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이젠 원정길에도 1군 엔트리에 없는 투수를 데려와 가르치기 시작했다.

SK 와이번스 시절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수진을 풍성하게 했다.

한화 2군에는 김 감독이 주목하는 투수가 여럿 있다. 시속 150㎞를 던지는 박한길이나 베테랑 좌완 마일영, 김범준 등이다. /김민준기자

날씨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4	
					5			
4	9			8		1	7	
	6			7	9	5		
				6				
		2	3	4			9	
	7	3		5			1	4
			1					
	1	5				3		

						2		
	9	2	3					8
6			1	8		9	7	
	3		4					
2		9		3		5		1
					6		9	
	2	6		4	1			7
8					5	6	1	
		1						

스도쿠 정답

3	5	8	7	1	6	2	4	9
7	2	1	4	9	5	6	3	8
4	9	6	2	8	3	1	7	5
1	6	4	8	7	9	5	2	3
9	3	7	5	6	2	4	8	1
5	8	2	3	4	1	7	9	6
2	7	3	6	5	8	9	1	4
6	4	9	1	3	7	8	5	2
8	1	5	9	2	4	3	6	7

3	1	8	6	9	7	2	5	4
7	9	2	3	5	4	1	6	8
6	5	4	1	8	2	9	7	3
1	3	5	4	2	9	7	8	6
2	6	9	7	3	8	5	4	1
4	8	7	5	1	6	3	9	2
5	2	6	9	4	1	8	3	7
8	4	3	2	7	5	6	1	9
9	7	1	8	6	3	4	2	5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제주공항 JDC, 면세점이야 담배가게야?

소비자 119

토요일인 지난 9일 오후 제주 여행을 마치고 김포행 에어부산 비행기를 타려고 제주국제공항 탑승구 쪽을 찾은 직장인 ㄱ씨는 근처에 있는 면제점을 둘러보다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JDC면세점이 보세구역 곳곳에 담배판매 부스를 설치해 놓고 면세 담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면세담배는1명당 1보루만 살 수 있는데, KT&G 레종의 경우 한 보루를 1만8700원에 판매했다.

ㄱ씨는 13일 "공항 면제점 안팎에는 모두 3곳에 담배판매대가 설치돼있었는데, 화장품이나 선글라스, 시계 등을 파는 부스에 비해 이들 담배 부스는 구매자들로 몹시 북적거렸다"며 "면세점 전체가 마치 담배가게 같은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제주국제공항 내 JDC면세점 본관 옆에 별도로 마련된 소규모 판매 부스에서도 면세담배를 팔고 있다.

이어 "정부는 금연운동한다며 담뱃세까지 올렸는데,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이렇게 담배판매에 열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고 말했다.

JDC면세점은 제주 관광 활성화와 개발비용 조달을 명분으로 국토부 산하 정부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내국인 전용 면세점이다.

ㄱ씨는 "올해부터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려는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매장 직원이 말했다"며 "다른 민영 면세점들도 담배를 팔긴하지만 정부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이렇게 담배 판매에 열중하는 것은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초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그 1차적인 목적이 금연 확산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 정부가 공영 면세점에서, 그것도 내국인들을 상대로 담배장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제주공항 JDC면세점에는 모두 3개의 면제담배 판매 부스가 설치돼 있다. 메인 판매부스는 면세점 본관 내부에 있고, 입구쪽에는 면세점 외부를 향해 또 하나의 담배 판매 부스가 마련돼 있다. 면제점 본관과 100여m 떨어진 곳에도 양주와 인삼제품과 함께 담배를 파는 소규모 매장이 있다.

/강민규기자 unh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일이 안풀려 고민… 역학공부 도움 될까요
공부 할수록 겸손… 약속을 잘 지키세요

사주첩경 남자 70년 6월 21일 16시경

Q 제 사주를 올립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듯이 제가 제 사주팔자를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료 사주 상담을 여러 군데 올려 보았는데 다들 제각각 입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병의 경과를 자세히 알려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나오고 광고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지내고 있는데 별로 돈이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설득하는 것이 특별나지는 않지만 요즘 광고가 전부 인터넷으로 되므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역학 공부를 하면 유명해질 수 있나요.

A 약속을 잘 지키고 뭐든 열심히 하십시오. 역(易)에도 여러 학문이 있겠으나 주역점(周易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점의 기원은 주(周)나라 이 전 부터도 제후와 제왕의 전유물이다시피 하다가 춘추전국시대 이후에는 일반인에게도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주역점은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됐는데 즉 전쟁을 시작하는 날을 정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제나 행사의 개최 등 국가의 대소사는 물론 가정사에서도 혼사 날이나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에도 깊이 활용됐습니다. 점을 치려면 이는 단순한 점술이 아닌 주역 괘에 대한 배움은 물론 깊은 학문적 통찰이 필요했기에 적어도 사서삼경을 공부한 학인들이나 선비 급 이상의 엘리트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역은 사서삼경 중에도 가장 나중에 배우는 과목 이었습니다. 학문적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고는 주역 64괘의 실상과 물상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 낼 수 없었습니다. 이 64괘를 기초로 우주만물의 본질과 변화현상 그 만상의 연관성과 펼쳐짐을 통찰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주역서를 보고 '신묘하고 또 신묘하도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평민들은 동네의 학인들이나 선비를 찾아가 본인들의 궁금한 점을 묻기 위해 정중히 괘를 뽑아줄 것을 청하곤 했는데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음양오행론에서 발달한 역학이 명리학, 매화역수 등으로 발전하게 됐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인 듯하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 할 때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14일 (음 3월 26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책이 보입니다. **72년생**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84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9년생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61년생** 과속에 절대 주의하세요. **73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85년생**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51년생 쇼핑에 큰 돈을 쓸 수 있습니다. **63년생**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75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87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52년생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4년생**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76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모든 일에 노력을 하세요.

54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것입니다. **66년생** 이성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78년생** 언행에 주의하세요. **90년생**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55년생 현재에 만족하세요. **67년생** 어렵게 일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79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것입니다. **91년생**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길합니다.

5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68년생**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80년생**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세요. **92년생** 만사형통한 운입니다.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일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합니다. **70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82년생** 부지런히 뛰어 다녀야 합니다. **94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지 마세요.

초상화를 통해 본 일본의 이중성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침략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고,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보가 도를 넘어섰다. 아베 정부는 물론 일본 사회 전체가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일본인 개개인은 정말 친절하다. 이런 일본의 이중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최근 이러한 일본의 이중성을 한일 양국의 초상화를 비교해 설명한 주장이 있어 관심있게 봤다.

피부학을 전공한 의사 출신으로 현재 (사)현대미술관회 회장으로 있는 이성낙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의 이중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선시대 우리 초상화는 다양한 피부 병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500여 점이 넘는 초상화를 분석한 결과, 아무런 피부 증상 없는 깨끗한 피부를 지닌 초상화는 10% 남짓이었다. 이는 조선시대 우리 초상화가 각종 비정상적인 것을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테면 사시, 실명 외에도 노인성 검버섯 같은 흔한 피부 병변은 물론 만성간경화증을 앓다가 사망했음을 임상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초상화의 얼굴을 짙은 흑갈색으로 묘사한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조선 초상화에서는 티끌만큼도 흠을 감추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의 초상화는 다르다. 일본 초상화에서는 어떤 피부 병변도 확인할 수 없다. 일본 초상화 속의 얼굴이 예외 없이 하얗게 분장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의 초상화(도쿄 고다이지 소장)와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초상화(교토 대학교 박물관 소장)를 들 수 있다. 두 초상화 모두 안면을 백색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일본 역사서를 보면 이들은 만성간경화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즉 일본 초상화는 '숨김의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있는 것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을 못 본 척하는 정서가 초상화에 그대로 드러난다.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과거사를 숨기고 외면하는 것은 본래 일본인이 가진 이중성으로, 백색의 초상화처럼 오랜 '미장(美裝)'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의 복지부동… 민원인 입장 헤아려야

기자 수첩
복 현 명
<사회부 기자>

"증거 자료가 우편으로 법원에 도착 후 48시간이 지나도 담당부서에 도착을 안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얼마전 '신세계의 본지 탈취 사건'으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과 열람복사실을 찾았다.

대법원 사건조회기록에 명시된 '해당 부서 도착'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과 열람복사실을 찾았지만 '오전 10시 27분'에 도착했다는 영상은 오후가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열람복사실의 담당자는 "아직 증거 우편물이 해당 부서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보통 오전에 도착한 우편물은 하루나 이틀정도 소요되니 내일 정도면 도착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다음날 민사신청과 열람복사실을 찾아가 또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아직 우편물이 부서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기자는 정확히 48시간이 지난 이틀후 오후가 돼서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자신이 해당하는 사건의 정보와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증거나 문서의 열람을 신청한다. 민원인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법원에 보내진 우편물은 법원 내에서 지체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 도착하는 우편물에 관련된 규정도 없다. 결국 민원인들은 담당자의 말만 듣고 우편물이 담당부서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민원인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공무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은 법원에서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우편물을 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늦장대응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3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조를 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잊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담당부서의 한 직원은 "보통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하면 1층 우편물 접수실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부서별로 분류작업을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민원인의 애타는 마음은 처음부터 관심밖으로 보였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민원인을 생각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딱딱한 껍질 속 슈퍼푸드, 견과류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호두, 아몬드, 땅콩, 잣, 밤 같은 견과류는 크기는 작아도 속은 꽉 찬 슈퍼푸드다.

견과류의 다양한 효능 중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노화 예방이다. 특히 견과류는 젊고 건강한 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이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들 항산화 성분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뇌 세포의 손상을 방지한다. 뇌 활동을 촉진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평상시 육류와 인스턴트식품,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방과 당, 각종 화학물질 때문에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지기 쉽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진다.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좁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몸에 해로운 LDL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낮추지만 건강에 이로운 HDL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인다. 그래서 중년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심장과 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견과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견과류에 풍부한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엽산 같은 성분들이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 평소에 정서적인 긴장 상태에 늘 놓여 있거나 스트레스로 짜증이나 화가 자주 난다면 자극적인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보다는 견과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견과류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견과류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호흡기를 자극하는 독소를 제거하며, 염증을 다스려준다.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도 높여준다. 옛날 궁중에서 감기약처럼 쓰였던 오과차에 호두, 밤 같은 견과류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감기를 자주 앓거나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호흡기가 약해진 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A Major Earthquake Stikes Nepal, 'Residents Terrified'.

The magnitude-7.3 quake -- centered midway between the capital of Kathmandu and Mount Everest -- hit hardest in districts northeast of the capital. It terrified a nation already shell-shocked and struggling after a more powerful quake on April 25 killed more than 8,150 and flattened entire villages, leaving hundreds of thousands homeless.

People of Kathmandu shouted that the entire country might come to an end. Frightened residents in the capital, who had returned to their homes only a few days ago, were once again setting up tents outdoors. The police advises the residents to stay indoors and communicate through messages instead of calling.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추가 강진에 네팔인 '공포·경악'

12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3의 추가 강진으로 네팔인들이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 규모 7.8의 첫 강진이 발생한뒤 17일 만이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이날 낮 12시35분께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까지 이어졌다. 건물 붕괴를 우려한 주민 수천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이들을 꼭 안고 대피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뛰어갔다. 거리는 통신망 두절로 먹통이 된 휴대전화를 붙들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가득찼다. 카트만두의 한 시민은 "네팔이 이번에 완전히 파괴될 것 같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상점들은 서둘러 문을 닫았고, 통신 뿐만 아니라 전력이 끊긴 곳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 생활을 예감한 일부 주민들은 천막을 가져나오거나 음식물을 챙겨오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네팔 경찰은 주민들에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 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실 비서관 박상철 ▷국정운영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과장 손진욱 ▷기획총괄정책관실 국정상황총괄과장 방진아 ▷일반행정정책관실 의정과장 박영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장 정은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최영진 ▷정부업무평가실 국정과제관리관실 평가총괄과장 정일황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장 김희순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한경필 ▷점검팀장 나관주 ▷경제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장영현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정병규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윤순희 ▷사회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병우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여성가족아동과장 양찬희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관리팀장 신강민 ▷민정실 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기획행정관 이장호 ▷시민사회비서관실 민관협력행정관 서문수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김진남

■ 기초과학연구원

◇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부장 ▷장치구축사업부장(직대) 김형진 ▷시설건설사업부장(직대) 김규남 ▷통합사업조정부장 김재홍 ▷운영지원부장 김왕근 ▷사업협력부장(직대) 박창호